

*
 글. 로. 벌. 리. 포. 트
 미국

미국은 모든 민족과 종족이 모여 있는 국가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는 melting pot이라고 불리며 각종 문화가 미국 문화 속으로 흡수되고 다시 새로운 미국 문화로 거듭나고 있다. 미 동성애자 사이에게 처음 발견되었던 에이즈가 전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현재, 미국의 에이즈 양상은 어떻게 변화 되었을까?

소수 민족 에이즈 위험군으로 부상

:: 방정숙 Trinity Center · Des Moines · Iowa 간호사



美 에이즈역학

여성, 흑인, 히스패닉계의 에이즈감염 급증

현재 미국의 에이즈 유병률은 약 0.6%이고 약 95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환자가 살고 있다. 이 중 남자는 약 71만 명(75%)이고, 여자는 약 24만 명(25%)이다. 미국의 에이즈 역학 양상은 우선 에이즈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퍼진 후에 일반대중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인구집단에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에 대두된 것은 아마도 1981년 샌프란시스코의 5명의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주폐포주자충 폐렴에 걸린 것에 대하여 미국질병관리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한 것이 역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분기별 에이즈 역학 보고서를 보면 에이



즈 발건 초기부터 1990년 초반까지 남성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유행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었다.

그러다 1993년을 기준으로 동성애자들 그룹에서의 에이즈 유행률은 저하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반면에 여성과 흑인, 히스패닉 인구집단에서의 에이즈 유행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현재는 여성과 흑인, 히스패닉(Hispanic :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룹에서의 에이즈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학적인 숫자로 보자면 감염경로가 남성동성애인 경우가 48%, 마약 사용으로 인한 감염은 27.4%, 이성애로 인한 감염은 15.45%, 남성동성애자이면서 마약사용으로 인한 감염이 6.8%, 기타(혈우병 환자, 수혈, 수직감염 등)가 2.35%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가 에이즈 위험군인 이유 “에이즈교육, 병원 접근성에서 소외”

이렇게 동성애자 그룹에서의 에이즈 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장 급격한 이완율과 발견율을 보이는 그룹은 사회적 약자, 특히 흑인과 여성, 히스패닉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 중에 2002년도에 HIV/AIDS로 진단된 비율은 전체 감염자의 50%이고 미국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 중에 2002년도에 HIV/AIDS로 진단된 비율은 전체 감염자의 20%이다. 또한, 신규 여성감염인의 72%가 흑인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이 특히 분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의 수준이 낮은 흑인의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대체

로 직업이 없거나, 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대체로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일반 미국시민들에 비해 낮으며, 흑인과 같이 건강체계 시스템에의 접근성 또한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 그룹에 대한 국가적 에이즈 대응책

이러한 역학적, 인구학적 특징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대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은 의료서비스가 계층별로 비슷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는 소수민족의 지역사회 민간단체에서 종사하는 케어 제공자를 지지강화하고, 둘째는, HIV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는, HIV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서 미래에 HIV 관련 기금을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9년부터 마련된 이러한 소수민족을 에이즈 예방과 케어 기금은 2004년 현재 약 4억 달러 정도로 상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 기금은 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MH(Office of Minority Health), Office of Secretary에서 공동으로 출자 운영되고 있다.